

나주 5대 축제, 10월 한 곳서 즐겨요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 일원서

10월20일부터 10일간 통합축제

윤병태 시장 주재 현안 점검회의

나주시가 오는 10월 나주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축제를 한데 모은 '통합축제'를 기획했다.

나주시는 10월 개최를 두 달 앞두고 최근 윤병태 시장 주재 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2023 나주축제, 영산강은 살아있다'라는 이름의 통합축제는 오는 10월20일부터 29일까지 열흘간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나주를 대표한 축제인 마한문화제와 도농상생 페스티벌, 시민의 날 기념식, 나주설치미축축제 등 5개 축제가 이 기간 함께 열린다.

지난해에는 나주 대표 축제인 '마한문화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려 마한진품 체험, 마한정품 먹거리 시식, 활쏘기, 금동문양 팔찌·금동관 만들기, 향토식당 운영, 특산품 판매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됐다.

같은 달 초에는 영산강 강변도에서 하프(21.0975km), 10km, 5km 등 종목이 있는 마라톤 대회도 진행했다.

나주시는 지난 7월 국내 1세대 문화기획자로 꼽



나주시가 '10월 통합축제'를 앞두고 최근 회의를 열어 축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히는 남정숙(60) 대한민국문화예술인포럼 대표를 나주시 축제 총감독으로 선임했다.

그는 2019년과 지난해 순천 낙안읍성민속문화축제 지휘봉을 잡기도 했다. 남 감독의 올 연말까지 임기 동안 나주의 대규모 가을 축제·행사를 한데 묶어 지역 대표 축제 브랜드를 구축한다. 연말 빛가람동 일원에서 처음 개최하는 '빛가람 빛 축제' 기획·연출도 담당할 예정이다.

윤 시장은 최근 막을 내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캠프를 예로 들며 두 달 남의 통합축제 준비를 위해 모든 부서가 역량을 최대한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통합축제 상황은 부시장 주재로 매

일 점검될 예정이다.

윤 시장은 "10월 중 각종 축제와 행사·문화공연을 통합한 2023 나주축제는 지역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협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 시장은 이날 열린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발표한 반려동물 음식, 반려동물 의료 연관 산업을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과 연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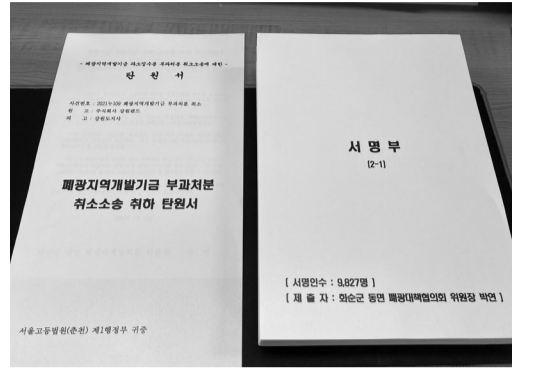
“폐광 기금 1071억 강원랜드에 반납 안된다” 화순군 폐광대책협의회 법원에 탄원서 제출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두고 강원도와 강원랜드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두고 화순군 주민들이 법원에 탄원을 제기했다.

17일 화순군 등면 폐광대책협의회(위원장 박연)에 따르면 협의회는 최근 강원랜드가 강원도를 상대로 낸 '폐광지역개발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군민 9827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사진)를 제출했다.

협의회는 탄원서를 통해 “이 소송에서 강원도가 패소하면 이자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7개 폐광 지역은 1071억원을 반납해야 한다”며 “가뜩이나 폐광기금이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광 지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호소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강원도가 강원랜드의 수익금 25%를 납부받아 전국 7개 폐광 지역으로 분배하고 있다. 폐광기금은 폐광지역 대체 산업 육성 과 기반 시설 조성, 교육문화, 관광 진흥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인다.



강원도는 2020년 5월 폐광기금을 적게 받았으며 강원랜드에 과소징수분 2250억원을 부과해 일부인 1071억원을 납부받았다.

강원도는 강원랜드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7개 폐광 지역으로 과소징수분을 분배하며 '패소하면 반환해야 한다'고 서약서를 받았다.

1심에서 패소한 강원도는 오는 23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함평경찰, 고령자 전동차 깜빡이등 달아주기

함평경찰이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벌였다.

함평경찰은 17일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를 찾아 전동차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전동차 뒤에 LED(발광다이오드) 깜빡이 등을 달아줬다.

이는 고령자들이 밤 시간대에 전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생길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깜빡이 등이 도로를 오가는 차량 운전자에게 전동차의 위치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또 이날 함평경찰은 함평군 5일 시장을 찾아 고령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홍보물을 나눠줬다.

이날 홍보에는 함평군, 함평군의회, 함평군상인회,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지킴이회 등 40여 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고령 주민에게 전동차 운행 때 안전 운전해달라고 당부했다.



함평경찰이 17일 함평 5일 시장을 찾아 고령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함평경찰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3건의 교통사고 사망자 모두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운장기 함평경찰서장은 “사회적 약자 배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올바른 경찰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맞춤형 교통약자 보호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성군 11개 마을 자율형 건물 번호판 684개 설치 마무리

장성군이 11개 마을을 대상으로 특색을 살린 자율형 건물 번호판 684개 설치를 마무리했다.

자율형 건물 번호판은 주변 환경과 건물 외관을 고려해 번호판의 재질과 크기 등을 개성 있게 만들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장성군은 장성읍 미라리리와 황룡행복마을 등 11개 마을의 신청을 받아 총 684개소에 자율형 건물 번호판을 설치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마을 공용장소에는

LED(발광 다이오드) 건물 번호판을 붙여 밤 시간대에도 잘 보이도록 했다.

건물 번호판을 새로 단장한 주민들은 지역의 개성과 정체성을 보여주고 마을 분위기를 산뜻하게 만드는 번호판에 대해 만족감을 표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마을 고유의 개성과 매력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점차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강진사랑상품권

종류별 구매 한도 폐지

강진군이 다음 달부터 지역화폐인 강진사랑상품권을 종이·카드·모바일 종류 모두 통합 관리한다.

강진사랑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는 개인별로 한 달 판매 한도를 70만원으로 설정한다. 기존에는 월 70만원 한도에서 종이·카드 35만원, 모바일 35만원까지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종류 구분 없이 총 7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관리를 위해 오는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강진군민의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신규 구매가 제한된다.

9월1일 이전에 산 모바일 상품권 결제는 연말까지 할 수 있다.

한국조폐공사 차(Chak) 통합관리시스템은 내년 1월1일부터 개편 운영되며, 같은 시점부터 제로페이 모바일 시스템은 운영 중단한다.

강진군 관계자는 “기존 지류·카드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의 이원화 방식에서 통합 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상품권의 선택적 구매가 가능하게 됐다”며 “상품권 사용이 더 활발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장흥군과 용두농협이 17일 장동면 북교리 미곡처리장에서 '정남진 장흥 찹쌀 전문도정공장' 준공식을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장흥 용두농협에 '찹쌀 전문도정공장' 준공

3년간 35억 투입 찹쌀 특성화 사업

장흥군 장동면 북교리 용두농협 미곡처리장에 '정남진 장흥 찹쌀 전문도정공장'이 준공됐다.

장흥군은 17일 농업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찹쌀 전문도정공장 준공식을 열었다.

도정공장 건립은 장흥군이 추진하는 '장흥형 지역활력 특성화 사업'의 하나로 이뤄졌다.

장흥군은 지난 2020년부터 '정남진 장흥 찹쌀 주산지 활성화 사업'을 특성화 사업으로 선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에 걸쳐 총사업비 35억2200만원이 투입됐다.

사업 첫해에는 찹쌀 상표 '가치지은'을 개발하고 연구시설과 기계장비를 갖췄다.

다음 해에는 포장재를 개발하고 저온 보관시설을 신축했다. 올해는 찹쌀 전문도정시설을 구축하고 농업인 대상 교육을 진행해 고품질 찹쌀 산업화 기반을 마련했다.

장흥군은 전국 최대 찹쌀 생산지로, 찹쌀 전문도정공장이 준공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장흥군 측은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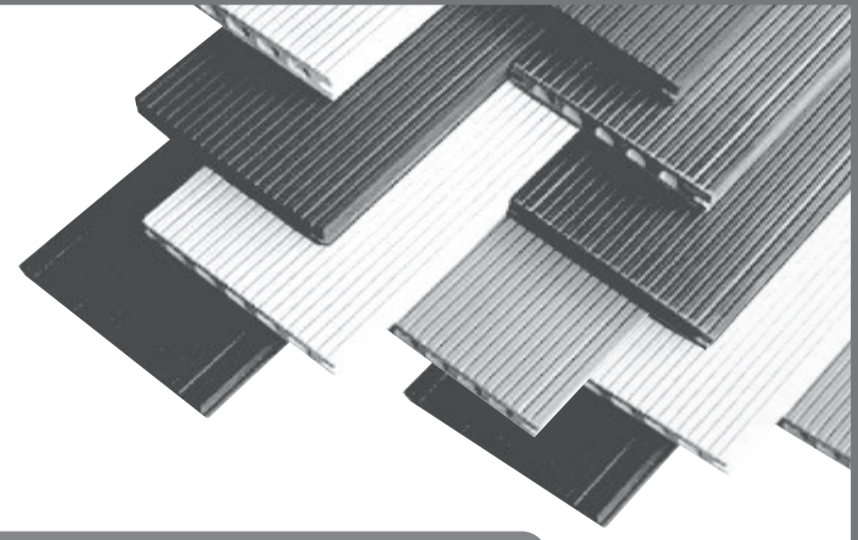
이곳에서는 찹쌀 가공과 포장, 저장 등 모든 유통 과정을 담당한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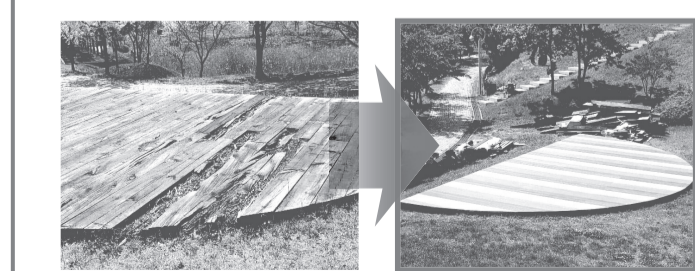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